

여성적 피학성은 되살릴 가치가 있는 개념인가?

Lesely Steyn

8 Elgin Road, London N22 7UE, UK

이 논문에서 저자는 환자가 발달이 진전되었다가 피학적으로 퇴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탐색한다. 그녀는 환자가 오이디푸스적 관계에 대해 분투하는 것을 단지 전오이디푸스적 갈등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으로 쉽게 혼동해서 그 결과 분석가가 환자를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분석했을 수 있는 순간에 관심을 둔다. 저자는 Freud의 고전적 개념인 ‘여성적 피학성’을 임상 상황의 요소를 특히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로서 재조명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녀는 발달 모델의 일부로 간주되는 여성적 피학성 개념이 분석가에게 환자가 성적인 오이디푸스적 갈등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개념을 되살리는 것은 오이디푸스적 불안을 놓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으로부터 퇴행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키워드: 방어, 발달, 성(gender), 피학성, 퇴행, 전이

이 논문에서 나는 Freud의 고전적 ‘여성적 피학성’ 개념이 유용하게 되살아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관심은 피학성이나 도착에 대해 일반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임상 실체에 대한 어떤 함의에 관심이 있다. 특히 여성적 피학성 개념에 관심을 두는데 이는 고전적 발달 모델 안에서 오이디푸스적 관계와 전오이디푸스적 관계 사이에 퇴행하는 움직임을 신호해준다. 본질적으로 나는 어떻게 회기 중에 오이디푸스적 관계를 향한 잠재적 발달의 순간들이 분석가가 단지 환자의 전오이디푸스적 이슈만 해석함으로써 지연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하며 Freud의 여성적 피학성 개념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풍부한 상황에 주의를 두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는 여성적 피학성 개념을 요약하고, 이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논의하고 가장 유익하게 보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깊이 새겨진 생각들을 알아내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오이디푸스적 상황에서 보이는 독특한 방어를 의미하는 발달 모델의 일부로서 여성적 피학성 개념이 보존될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논문 전체에 걸쳐 남성 환자 -A씨- 의 분석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는 5년 동안 카우치에서 주로 주 4-5회씩 만나왔다. 이것들은 완전한 연

속이나 시간 순서대로 제시되지 않으며, 오직 전오이디푸스적 상황과 오이디푸스적 갈등으로부터 퇴행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비교하기 위한 예로서 제시된다.

Freud(1905)는 처음에 피학성을 아이들의 강한 공격적이고, 가학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항문기에 어머니를 향한 양가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에게로 되돌려진 것으로 보았다. 1919년 논문에서 그는 피학성은 변형된 가학성의 결과임을 재확인했지만 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형성과 해결에 있어서 그것에 특별한 역할을 두었다. 특별한 종류의 도착(매 맞는 남녀 아이 모두의 보편적인 환상에 근거하여)을 논의하면서 Freud는 남자 아이들에게서 어머니로부터 매 맞는, 의식적이거나 의식 될 수 있는 환상이 어떻게 일차적인 것이 아닌지 보여주었다. 사실 이것은 예외 없이 무의식적이고 ‘나는 아버지에게 매 맞고 있어요’라는 선행단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 대상이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매 맞고 싶은 욕망 그 자체는 사실은 그에게서 성적으로 사랑받고자 하는 좀 더 강렬하고, 깊이 억압된 욕망의 변형이었다. 성기기적 욕망은 처벌로 바뀌었는데 이 욕망에 내포된 죄책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이며 이것은 성기기적 욕망을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성취되어왔다. Freud는 이것을 ‘떨어뜨리기’라고 했는데, 이는 한 발달 단계에서 좀 더 초기 단계로 ‘퇴행’ 하는 것으로, 내가 나중에 돌아올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남자 아이의 매 맞는 환상은 처음부터 수동적인데, 아버지에 대한 여성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Freud(1919)는 이러한 환상이 그 내용상 동성애적 대상 선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여성적 태도’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이 남성은 무의식적으로 여성처럼 느낄 것이고 때리는 여성들에게 남성적 특징을 부여할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아버지를 나타내게 된다. 사실, 여성에게 남근적 특징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피학성이 있는 사람이 여성에게 페니스가 부재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따라서 Freud의 이후의 페티시즘에 대한 모델에서처럼 거세 공포를 부인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Freud, 1927).

1924년 Freud는 남성들의 ‘여성적 피학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나갔는데 이 남성들은 “재갈물린, 묶인, 고통스럽게 매 맞는, 채찍질 당하는, 어떤 식으로든 학대 당하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받는, 더럽혀지고 가치 절하되는”(p.162) 것에 대한 환상을 지닌다. 그는 분명한 해석은 이러한 남성들이 작고, 무력하고, 장난기 많은 아이들처럼 여겨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환상들을 면밀히 연구해보면, 그것들이 주체를 특징적으로 여성적 상황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그들이 거세당하거나, 성교당하거나,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Freud(1924)는 그것이 유아적 삶을 나타내는 많은 특징이 있음에도 이것을 ‘여성적’ 피학성이라고 불렀다.

이후에, Freud는 더 이상 여성적 피학성을 남성의 현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여성적* 피학성에 대한 많은 저술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는 거의 쓰이지 않았고 과거 20년간 자취를 감추었다.

프랑스는 눈에 띄게 예외적이다. 예를 들어, Cosnier(1985)는 여성적 피학성을 과거 관계와 내적 유대를 유지하는 자아의 방법으로 기술한다: 그녀는 이것을 어머니와의 일차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이자 어머니와의 이른 동일시인 동시에 유아기적 및 사춘기적 신경증적 조직의 흔적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본다. 일차적 피학성 개념의 활용과 반복 원리(창조적이고 새로운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없는)의 강조는 Freud에 의해 쾌락 원칙보다 좀 더 원시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Cosnier는 차이를 없애는 연합에 대한 욕망과 차이를 강화시키는 분리 욕망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자아가 이것의 가장 초기 동일시를 지속하는지 기술한다. 그녀의 관점에서 여성적 피학성은 일종의 과거와의 잃어버린 연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초기 성애적 ‘일차적’ 피학성과 가장 발달된 ‘도덕적’ 피학성 사이 중간 지점에 포지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okanowski(1995)는 *심리적 동성애의 개념*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남성에서의 여성적 피학성의 *억압*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심리적 동성애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여성적 자기가 용납되지 않을 때, 수동적인 여성적 구성요소를 억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화하는 포지션으로 본다. 대신 그로 인해 남근은 이상화된다.

성(gender) 특수성에 대한 질문

이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피학성이 여성의 성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게 한 의심할 여지없는 불쾌감을 줬기 때문이다. 확실히 Freud의 아이디어들은 마치 그가 피학성이 여성의 본질이라고 의미한 것처럼 자주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면, Helene Deutsch(1930)는 어떻게 여성이 클리토리스 리비도를 피학성으로 그리고 아버지에 의해 거세되고 싶은 소망으로 바꾸는지와 더불어, 출산을 성애적, 피학적 쾌락의 궁극적 만족으로 보는 것에 대해 기술했다. Bonaparte(1952)는 피학성을 심리적 여성적 요인의 비대(肥大)로 기술했는데, 이로 인해 어린 소녀의 무의식에서 성애적인 삽입과 상처 입히는 삽입을 혼동하게 되었다. 여성들이 궁극적으로 강간당하고 굴욕적이길 원한다는, 즉 그들의 자연 생물학적 상태 - 삽입당하고 자 하는 수용적 목적 - 가 성-특수적 피학적 경향성을 만든다는 인상은 대체로 비난

받았다. 오늘날 우리는 여성이 심리적으로 더 이상 남성들보다 당연히 성적으로 복종하고 굴욕 당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Dana Birksted-Breen(1993, pp. 6-7)은 *성의 수수께끼*의 도입부에서 Freud가 말한 포지션의 미묘함이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주 상실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실제로는 Freud가 여성성의 집합특징이나 범주화를 찾지 않았다고 썼다. 오히려, 그의 관심과 이론은 대상관계 및 방어 기제의 발달과 관련되었다.

융 학파의 관점에서, Warren Colman (2001)은 남성 심리에서 남성성의 표상으로 서 남근의 중심성을 탐색한다. 그는 Freud의 설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린 아이가 자신의 해부학적 구조의 실체에 대한 지각을 중심으로 엮어 나아가는 느낌과 환상을 정교화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부학이 운명이다’ 라는 구절이 시사 하는 것에 비해 그의 접근은 덜 결정론적이다. Freud의 주장은 페니스의 보유 또는 결핍에서 유래하는 심리적 *결과*와 관련되는데, 즉, 아이가 이런 생물학적 사실들을 *자신의 마음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다.* (Colman, 2001, P. 123)

이런 글들은 Freud의 고전적 개념에 대한 재고 가능성을 잘 짚어내고 있는데 이는 내가 남성 심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여성적 피학성이라는 용어가 실제 여성의 성관계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어린 아이들의 환상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유용하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록 ‘여성적 피학성’은 사용되지 않지만, 현대 정신분석적 사고에 열렬히 간직되어 오고 있는 것은 남녀 어린아이들이 원초경에 대한 매우 폭력적인 환상 형태(대체로 완전히 무의식적이지만은 않은)와 함께, 아기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다(Chasseguet-Smirgel, 1993).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생각은 어머니의 항문이 삽입되고 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아이가 더 질투하고 배제된다고 느낄수록, 원초경 환상은 더 폭력적일 것이다. 따라서 아이가 부모의 성관계에 대한 무의식적 이미지를 아버지가 어머니를 파괴적인 남근으로 해치는 것으로 형성할 때, 이는 아이 자신의 상처받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소망이 투사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물론, 때로 이것은 현실에서 사실일 수 있다).

우리가 만일 이 환상들의 거칠고 유아적인 특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때 여성적 피학성이란 생각은 무의식적 유아적 환상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특정한 동일시 포지션으로서 확실히 받아들여질 수 있고 조명될 수 있다. 어린아이의 가학-피학적인 삽입 환상의 개념을 사용할 때, 실제 성인 여성의 성적 즐거움이 삽입에 의해 상처입음(그럴 수 있을지라도)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 성관계에서 아버지에게 의해 삽입당하는 어머니라는 생각이 시기하고 배제된 아이에게서 폭력적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며 - 그 장면에 대한 아이의 시각에 투사된 것이 바로 이러한 폭력성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의 제안은 ‘여성적 피학적’ 동일시 포지션을 채택한 남자아이들은 부모의 성관계에 대해 이러한 훨씬 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다른 남성들에 비해 더 그들의 활동적인 남근 충동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삽입하고자 하는 그들의 공격적인 소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부 그럴 수 있고 - 아마도 방임에 이어 과잉 자극의 좌절을 경험했을 것이다 (Coen, 1992) - 또 일부는 아버지가 너무 위협적이거나 실제로 좀 더 지배적인 어머니가 아버지(그리고 그의 페니스)를 어마어마한 괴물로 보게 하여 모방하지 않게 선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남자 어린이는 그의 성장하는 페니스 - 그가 심리적으로 자신의 활동적인 충동을 중심으로 엮어 나가는 기관 - 가 파괴적이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아주 위험한 것으로 느낀다.

환자 A씨는 이를 보여주는데, 그는 수동성과 피학적 문제를 호소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이에 따뜻하고 생산적인 교류가 있었던 회기에 대해, 그 이후 그는 폭력적인 짐승 같은 성교 이미지를 고통스럽게 쏟아냈는데 이는 수컷들이 암컷에게 하는 항문 침입이었다. 그런 후 그는 자신에게서 사라진 모든 활동 충동을 찾으려 했다. 그의 연상은 아버지가 만진 것은 뭐든 나쁘게 변한다고 느꼈고 자신이 그런 짐승 같지 않다는 것에 안도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공격적으로 어머니에게 항문 성교를 하는 것 같은 무의식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환자의 어머니와 항문 성교를 하고 싶다는 충동은 반동형성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런 짐승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대신 그는 자신을 거세시키고 가능한 여성적이고 수동적으로 행동했는데, 이는 아버지에 의해 처벌받고/(항문으로) 삽입당하는 환상으로부터 파생된 흥분이었다.

자신의 폭력적인 추동이 두려워서 A씨는 문자 그대로 오랫동안 운전을 배우지 않았었다. 분석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 마침내 시험 날이 다가왔을 때, 그는 나에게 실수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말 이 드레스dress를 통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Greenson(1968)은 남자아이의 남성성이 여자아이의 여성성보다 언제나 더 불안정하다고 강조했는데, 여자아이가 생후 18개월 동안 어머니와 초기 동일시함으로써 여성성 확립을 돕는 반면에, 남자 아이는 남성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일차적 대상인 어머니로부터 ‘탈-동일시’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아버지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애적인 어머니는 아이를 자신의 연장선으로 여기면서, 분리와 분화를 좌절시키고, 따라서 여성적 발달을 부추긴다. 마찬가지로 Stoller(1972)는 성전환 조 기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남자아이를 자신의 부속물로 여기는 어머니에 대해 기술한

다. 성장하는 페니스는 이 모자관계 유대에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피학적 요소를 설명하지 못한다. 결국, 남자아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적극적이고, 성취적이고, 강한 어머니와 잘 동일시할 수 있었고, 이것은 여성적 피학성이 아닐 것이다.

여성적 피학성은 가학적인 성교에 관한 특정한 환상 형태를 포함하는데 여기서 남자 아이는 아버지에게 벌 받고/삽입 당한다. 나는 이것이 흥분되고 배제된 이 꼬마 남자 아이가 괴물같이 보는 자신의 페니스에 대한 감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흥분을 보유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는 동시에 이 괴물/자기의 소유를 부인하는데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초경에 대한 이러한 환상 형태에서 여성의 환상 일부를 취함으로써 아버지를 대상으로 삼고, 전체적인 그림을 (처벌 받는) 항문기로 퇴행함으로써, 그는 죄책감과 거세 위협을 방어한다.

그는 여성이 됨으로써 위험한 경쟁자인 아버지를 달래는 것일 뿐 아니라, 어머니도 달래는 것인데, 이는 그가 그녀와 같아지길 바라며 만약 그가 다르고, 성장하는 페니스/괴물을 지니고 있다는 걸 그녀가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느끼는 어머니이다. 주의할 것은, 그가 실제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적 피학성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애정을 향한 어머니의 만만찮은 경쟁자로서 부적 오이디푸스 상황에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많은 의상 도착자들에서처럼, 그들이 종종 실제 여성처럼 보이지 않은 게 분명한데, 변장에는 자기 조롱적인 ‘가장무도회 의상’ 측면이 있다. 물론, 이것은 어머니의 여성성에 대한 공격적이고, 경멸적인 캐리커처를 동시에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여성적 피학성의 처벌적인 임상적 그림의 일부로 본다. 이 남성은 자신의 경쟁적인 오이디푸스적 분투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조롱하는 것인데, 실제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당신의 경쟁상대가 아니에요. 그런 척 할 뿐이죠. 실제로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여성처럼 행동하는 남성이 피학적이거나 수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여성이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이질적인 정체성을 채택함으로써, 성기에 대한 인식과 소유를 상징하는 자신의 창조적/생식적 힘을 마음에서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Colman(2001)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물학적 사실들은 많은 심리적 및 정서적 요인들의 초점을 조직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요인들은 신체적 사실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받지만, 그것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될 수 없다*”(p.123). Colman은 ‘페니스는 남근의 상징이다’라는 출처가 미심쩍은 용의 말을 인용한다. 다시 말해, 남근은 단순한 페니스가 아니라 남성의 성적 느낌과 환상의 상징적 표상이다. 이때 남성은 그들 개인만의 방식으로 페니스 소유에 대해 심리

적인 의미와 타협해야 하는데 마치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역량(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과 타협해야 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생물학적 장비가 마음속에서 거부되어야 하는 경우는, 성교에서 자신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창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쁘다는 기저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Freud가 여성적 피학성에서 기술한 것은 어떤 동일시 포지션을 채택함으로써 불안으로 인해 발달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은 Freud의 심리성적 발달모델과 퇴행의 개념이다

Freud의 퇴행의 개념

오늘날 분석가들은 단순히 '피학성'에 대해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처음에 Freud가 '여성적', '도덕적' 또는 '성애적' 피학성으로 구별했던 것과는 다르다. 각기 다른 종류의 피학성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여성적' 피학성의 구체적 개념이 우리에게 심리성적 발달과의 연결을 상기시켜주고, 이러한 연결이 도덕적 피학성에서 느슨해지고 일차적 피학성의 개념에서 완전히 상실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성적 피학성은 아버지로부터 처벌 받는다는 - 남성과 여성 모두의 - 기저 하는 환상에 대한 Freud의 개념을 상기시켜 주는데 이러한 처벌은 금지된 성에 대한 오이디푸스적 이슈들을 포함한다.

비록 Freud(1920, 1924년) 자신도 피학성의 기원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보이며 일차적 '성애적' 피학성을 옹호했지만, 이는 일부 Klein학파와 후기 Klein학파가 선천적인 죽음 본능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는 전오이디푸스기와 오이디푸스기를 강조하는 고전적 발달 모델을 간과하는 것이 실수라고 생각한다. 전오이디푸스기에서 피학성은 대상을 향한 양가성에 뿌리를 둔 가학성에서 나온 것으로 그런 다음 불안으로 인해 자기에게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후의 단계에서 이것은 남자 아이의 성장하는 신체에서 오는 욕망 및 요구와 관련된 성적 오이디푸스적 갈등의 형성과 해결에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된다. Klein학파의 모델에서는 이들 단계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Klein이 퇴행을 언급하긴 했지만 - (예를 들면, 그녀는 Richard의 사례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고착과 퇴행 현상 사이의 상호작용을 그의 모든 발달 단계에서 볼 수 있었다."(Klein, 1945, p. 349) -, 영국의 후기 Klein 학파의 문헌은 발달 모델에 대한 관심이 적다. Treurniet(1993)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Freud에 찬성하여 첫 번째 대상과의 관계는 오이디푸스 및 거세 콤플렉스에 의해 결정되지만, Klein은 첫 번째 대상인, 가슴과의 분리가 이후의 모든 경험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다. ... Klein은 다양한 심리성적 발달 단계보다 대상관계의 특정 형태를 나타내는 서로 다른 포지션과, 그것의 특정 불안에 더 관심을 두었다. ... 이러한 대립적 관점에 관한 논의는 주로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이는 추동 이론, 정동 이론, 특히 기법 이론 ... (뿐만 아니라) 기법 자체, 분석 임상 실제에 대한 중요한 발전과 큰 결과를 가져왔다. (p. 873)

Klein 모델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매우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 대상과의 분리가 처음 인식되는 3~6개월 사이에 (더 자세한 설명은 Birksted-Breen, 1993, 페이지 27~31 참조). Klein은 초기 성기기적 충동을 오이디푸스적 환상에 수반되는 것으로 실제적인 '성기기' 도달은 이러한 충동이 강해지는 때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Freud의 초기 모델의 일부 관점에서, Freud의 여성적 피학성의 개념은 방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방어는 4~5세에 남성 발달의 특정한 결정적 순간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다: 남자아이는 커지고 남성적이 되는 것과 직면하는데,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대상과 직면하게 될 때이다. Dana Birksted-Breen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Klein의) 거세 불안 모델은 주로 대상에 대한 가학적 공격의 결과이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로부터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태일 뿐이다. 이 개념은 Freud의 개념에서 급진적으로 출발했는데, 그의 거세 콤플렉스는 근친상간 금기와 특히 연결된다. 따라서 그것은 항상 오이디푸스적 상황의 일부이며, 심리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구조화하는 순간을 나타낸다. (1993, p.27)

나는 발달 모델이 우리가 환자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심리성적 단계에 대한 Freud의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단계에 도달한 환자가 깊은 불안감 때문에 더 이전 단계로 '퇴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환자를 뒤로 밀거나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할 수 있는 해석에 민감해질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한 단계나 또 다른 단계에 확고하게 계속 있다거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의 발달 단계를 만족스럽게 '훈습'해야만 하거나, 단계들이 환자에게서 원래 나타났어야 하는 순서대로 분석가가 반드시 훈습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어떤 분석을 통해서든 우리는 전오이디푸스 및 오이디푸스적 문제가 존재하고 그것들이 서로 겹칠 것으로 예상하며, 중요하게는, 환자의 지속적인 전오이디푸스적 문제들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언제든 환자에게서 구체화되는 특정한 방식에 영향을 주고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학성에서 Fitzpatrick Hanly가 기술한 바와 같이(Hanly, 1995, 페이지 153-7),

성기기적 성관계는 전면적인 오이디푸스기의 시작에서 기인하지만 성기기적 흥분(고통)의 형태와 상태는 초기 항문기에서 비롯된다. 때 맞거나 굴욕을 당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삽입당하는 금지된 근친상간적 갈망을 대신하고 처벌받는 것이다. 불안으로 인해 초기 성 조직으로 되돌아가는 이 움직임은 퇴행을 구성한다. 이때 이 초기 성 조직은 그 자체에 이후 단계로부터 그것에 '다시 전달된' 요소들이 주입된다. 이 사실은 이 이후의 단계의 갈등들이 '머물러' 관여했다는 신호로, 이것은 순전히 전오이디푸스적인 상황과는 구별된다.

전오이디푸스적인 것으로만 보이는 - 퇴행으로 왜곡된 -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치료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Freud의 피학성 발달 모델에서 전오이디푸스기는 때 이르게 발달된 가학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다음 오이디푸스기에서 이 가학성은 억압된 근친상간 소망과 결합하게 된다. 이는 피학적인 사람의 오이디푸스적 성애가 '정상적인' 오이디푸스적 성애보다 훨씬 더 폭력적임을 의미하며, 그러한 사실이 이것을 임상에서 환자가 전오이디푸스기의 문제로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시점에 환자의 주된 갈등이 항상 전오이디푸스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때로는 무언가 더 무서운 것로부터 도망치는 것일 수도 있다. 환자가 전오이디푸스적 갈등으로 퇴행한 것만 보고 다룬다면 그리고 이것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져서 좀 더 충분히 머무를 수 없게 된 갈등으로부터의 퇴행 - 후퇴 - 이라는 결정적 사실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환자가 오이디푸스적 갈등을 다시 되돌아보고 마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되는 위험이 있다.

이는 오이디푸스적 불안을 해석하면 환자가 전혀 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기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환자가 퇴행하고 있다는 - 예를 들어, 무엇으로부터 후퇴하고 있다는 -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환자에게 (a) 그가 퇴행하고 있다는 것과 (b) 무엇으로부터 퇴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그가 다시 돌아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지점에 대해 단순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는 우리가 환자가 자신 내부의 경험에 대해 아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며, 환자가 그것을 직면할 준비가 되었을 - 아직은 아닐 수 있지만 - 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것을 컨테인 해주는 것이다.

오이디푸스적 방어로서의 여성적 피학성

이 논문에서 나는 여성적 피학성이라는 용어가 4-5세 소년의 성욕, 죄책감, 거세 불안으로부터의 도피와 관련된 특정한 방어를 나타내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는 여성적 성적 매너리즘이 임상 상황의 일부라면 그것은 오이디푸스적 이슈가 두드러진다는 -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위협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는 - 단서이며 환자가 퇴행을 통해 도망가도록 강요받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상황은 발달적으로 2세의 자기애적 취약성, 분리 불안, 양가감정, 가학성을 포함하는 전오이디푸스적 이슈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Hanly(1995, pp.153-7)가 좀 더 충분히 기술한 Freud의 모델에 대한 나의 이해를 가지고 이러한 차이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사실 1919년 매 맞는 환상에 대한 모델에서 Freud는 이들 단계들을 명확하게 구분했는데 그는 2-5세 시기에 피학성 발달에서 환상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추적하였다. 2세에 아이는 어머니의 새로운 아기에 의해 사랑을 빼앗기고, 자기애적 상처를 입었다고 느끼고, 때 이르게 아버지에게로 돌아선다. 순전히 가학적인 매 맞는 환상 - '나의 아버지는 아이를 때리고 있다' - 의 첫 번째 단계는 안심 시켜주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나의 아버지는 다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나만 사랑한다'이다. 이는 성적인 것이 아니라 대상 상실과 사랑 상실의 공포에 직면하여 자기애적 상처를 회복하려는 목적이다. (비록 Freud는 이러한 첫 번째 단계를 여자아이에게서만 직접 관찰하긴 했지만, 그는 남자아이에게서도 첫 번째 단계로서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했다(Freud, 1919, p.199).)

매 맞는 환상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근친상간적 소망에 대한 죄책감과 보복의 두려움은 가학성을 자기에게 되돌리고 그래서 매 맞는 것이 부모와의 성적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그러한 근친상간적 소망에 대한 죄책감을 안심시킨다: '아니야, 그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너를 때리는 거야.'

위에 나온 두 가지 단계를 염두에 둔다면, 삶과 분석에서 부정적 치료 반응으로 자신의 진전을 좌절시키면서, 고통 받고 실패해야하는 것처럼 보이는 피학적인 환자의 임상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환자가 그러한 특정 순간에 근친상간적 욕망과 거세 위협에 대한 오이디푸스적 (성적) 죄책감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처벌하고 자신의 성공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인지 - Freud 모델의 두 번째 단계 - 아니면 2세의 초기 양가성에 고착되어, 분석가를 공격하길 원하고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환자가 발달적으로 4-5세 포지션에 있을 때, 근친상간적 욕망과 거세 공포에 대한 죄책감으로 좀 더 동기화되는데, 환자는 자신이 성장하고 남자다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와 심하게 경쟁해서는 안 된다. 만약 환자가 그를 추동하는 욕망에 의해 유발된 감정을 느낀다면, 그는 자신의 페니스가 괴물

같고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이 위험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상황에 여성적 피학성 방어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을 아버지가 때리고 처벌하는 여성으로 바꿈으로써 아버지를 달랜다. 이는 성기기적 성애에서 항문가학적 성애로의 퇴행을 포함하며, 적극성에서 수동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A씨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는 애정 생활과 일에 발전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한탄하면서 여성적인 잘난체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나에게 그를 심각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았다: “난 꽃 피지 않고 있어요. 내 가슴을 부풀릴 때가 됐어요.” 동시에, 회기에서 그는 짓궂지만 익살맞게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 얘기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와 내가 특별한 이해를 가지고 그런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공격적이거나 성적인 것을 내포하는 생각들을 내가 그에게 유발한다고 그가 늘 얼마나 주장하는지를 지적했다. 이것은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A씨가 약탈자처럼 보이는 것을 싫어하다고 인정한 것과 연결됐다. 그 대신, 그는 ‘여자 아이들 중 하나’인 것처럼 그들과 친하게 지내곤 했는데,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구들과 함께 부엌에서 아버지를 조롱했었던 것처럼, 남자 친구들에 대해 터놓고 얘기해보라고 부추기곤 했다. 그는 (나를 포함한) 이 모든 여성들이 속으로는 좀 더 남성적인 파트너보다 자신을 더 선호한다며 승리에 찬, 들뜬 확신을 말했는데, 진실이 아님에도 그랬다. 그는 절대로 여성들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는데 거절, 좌절, 무엇보다도 다른 남성들과의 위험한 열린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그러는 대신 자신의 여성적인 방식이 매력이 있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남근 은폐에 큰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는 마치 그가 목전에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하는 것 같았고, 심지어 그는 그들이 속임수임을 알지만 그것을 완전히 들춰낼 수는 없다고 느꼈다. 이 점에 있어서, Fenichel(1936)이 남근 은폐의 흥분에 대한 의상 도착증과 노출증에 대해 기술한 것이 생각났는데, 이는 여자 아이 = 남근이라는 등식에서처럼, 가장 가능성이 낮은 곳에서 발견된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어떤 것을 위해 결코 싸우거나 애쓰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여자 친구 또는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바랐는지 혹은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걸 택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게 했음을 인정했다. 이러한 안전한 ‘후퇴’를 함으로써 A씨는 단순히 자신의 페니스를 감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실제로 페니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나는 어떻게 그가 이러한 삼자적 상황에서 이자적 항문가학적 상황으로 되돌아갔는지 알게 됐다.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제시함으로써 말로 그를 ‘때리라고’ 나를(지금 전이에서 아버지로서) 도발하기 시작하곤 했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이 페니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달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점점

더 화가 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치료 받는다는 생각을 편안한 것으로, 나아지지 않고도, 즐길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는 자신이 하지 않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나에게 알려주곤 했는데 이는 치료가 자신의 삶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내가 치료를 좀 더 신병훈련소처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자신이 나아지지 않으면 자신을 채찍질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내가 그가 나아지는 걸 바라지는 않으면서 나 자신의 자부심을 위해서 그를 내 등지에 가두고자 애쓰는 어미 닭처럼 구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나를 비난하곤 했다.

나는 빈정거리거나 짜증나는 것을 참으려 계속 애썼어야 했는데 그는 내가 그를 잘 못 치료하고 있고 그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는 내 곁에 머물 거라고 말하면서 - 그는 늘 나쁜, 괴롭히는 관계로 있었다 - 혼자 흥분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긴밀하게 서로 묶여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흥분해서 말하곤 했다. 나는 짜증을 컨테인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해서 종종 마비되는 느낌이었다. 내가 그를 혼내지 못하게 해놓고는 그는 실망해서,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니어서 자신에게 해줄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A씨는 그가 카우치에 순순히 누워서 내가 그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환상과 꿈에 대해 보고한 적이 있다. 그는 내가 그에게 강력한 어떤 것 - 마법 페니스 같은 - 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흥분을 느끼고 그런 것을 바라지만 자신이 그런 위험한 것을 가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됐다.

이런 상황은 A씨가 어떻게 오이디푸스적 갈등으로부터 두려워서 퇴행했는지 그리고 그가 항문가학적이고 여성적 조직으로 자신을 되돌려 놓음으로써 자신의 활발한 남성적 분투를 피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그는 (아버지로서) 분석가에게 추파를 던지는 동시에 공격을 유도하고 있었다. 나는 먼저 환자를 언어적으로 때리거나 환자에게 굴욕감을 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대신 나는 A씨가 커지고 남성적이게 되고 솔직하게 경쟁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게 느끼는지를 강조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성적 '약탈자' 느낌, 즉 욕망의 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다른 한편, 발달적으로 걸음마기 아이의 항문가학 단계(퇴행해서 여기로 되돌아간 것과는 대조적으로)에 고착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좀 더 확실한, 때 이른 양가성으로 인해 부정적 치료 반응이 동기화될 수 있다. 이는 삼자관계에서 이자관계로 변동하는 위의 경우와는 다르다. 예를 들면, 진전에 대해 공포와 그것을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석가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는데 진전이 분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전오이디푸스기에 묶여 있는 A씨를 살펴보자: 그는 격렬하게 거부감을 느끼는 자신

의 삶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내가 고무적인 흥미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것을 해도 그가 “버려지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고 쓸쓸하게 말했다. 왜 나는 그가 나와 함께 있는 것도 원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와 끝내려고 애쓰고 있었던 걸까? 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걸음마기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서서히 변화되고 나아가길 원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처럼 느끼고 있는 것을 알았다. 내가 만약 A씨가 한 발 나아갔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는 거절당했다고 느끼고 또 다시 외롭고, 무력하고, 제자리걸음하며 분노로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그는 자주 비 혹은 땀으로 내 소파를 젖게 만들곤 했는데, 이것에 대해 그도 언급은 했지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한번은 완전히 젖은 상태로 흠을 잔뜩 묻히고 왔는데, 스스로도 소파를 더럽혀서 다음 환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가방에는 일 할 때 입는 옷이 있었지만 굳이 지금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기가 귀찮았던 것이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해 자신이 깨끗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 왜 나는 그 안에 있는 이 지저분한 아이를 사랑할 수 없을까? 그는 젖은 상태로 앉아있는 것은 그에게도 매우 불편하고 회기를 망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화가 났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내가 그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이것이 내 잘못이라고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분리-개별화는 공격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아이는 부모에게 ‘나는 당신과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해야만 하고 여기에는 복수로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부모가 자기애적이고 분리를 막는다면 개별화를 위해서 좀 더 강한 공격성이 필요하고 두려움도 더 커진다. 나는 Freud가 처음에 분석 과정에서의 저항을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의 ‘아니야’ 단계와 연결지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늑대 인간의 사례(Freud, 1918)에서 그는 증상이 없어지고 얼마 안 지나 다시 재발이 일어난 것을 관찰했다. 그는 이것을 아이가 자신이 의지가 있는 개별적인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 반항으로서, 멈추라는 말을 들은 후 한 번 더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 연결했다. 피학적인 환자가 전오이디푸스기에 고착되어 있을 때, 엄청나게 통제적인 대상 앞에서 자신을 지켜야 해서 폭력적인 힘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환자는 나아지기 보다는 상황을 뒤집고 분석가를 이기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 환자는 나아진다는 것을 스스로 행복하고 분석가가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분석가의 복수와 자신이 미워하는 (그러면서 깊게 사랑하는) 대상을 공격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두려워하여 스스로를 처벌한다.

Horney는 어떤 환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성공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너진 적들 위로 악의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과 같아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을 필연적으로 야기한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1936, p. 37)

아프고, 억제되어 있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다. Horacio Etchegoyen은 이 도착적 전이의 개념을 사용해서(Arlene Kramer Richards, 1997) 공격성이 그 핵심에 있고 환자가 나아지기보다는 분석가를 공격하고 굴욕감을 주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상황을 기술했다. Etchegoyen의 모델에서 성은 공격성을 위해 사용되지만 그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다. Freud의 피학성 발달 모델에서는 항문가학 단계의 폭력적인 양가성이 - 형제간 경쟁으로 인해 불붙는 극심한 자기애적인 취약성과 함께 -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형성되는 방식을 왜곡해서 여기에 폭력적인 느낌을 더하는 방식으로 완성된다. 억압된 근친상간 소망이 가학성과 결합하여 임상적으로 나타나거나 항문가학적 고착으로 퇴행하기 쉽다. 분석가는 불행히도 이러한 퇴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적 피학성 개념이 해석을 도울 수 있는 임상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자가 전오이디푸스 포지션에 있을 때, 성(gender) 이슈는 성적 삼각관계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환자는 어머니에 대한 그의 초기 동일시와 그녀로부터의 분리-개별화 - ‘탈 동일시’ - 의 일부로서 여성적 매너리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 (Greenson, 1968). 예를 들어 또 다른 환자는 내가 휴가를 다녀온 후, 화장을 하고 왔다. 그는 전날 밤 여자로 분장했는데, 그때 스스로 얼마나 진정이 됐는지 말했다. 결국 나는 그것을 ‘내(어머니)가 됨으로써’ 나와 의 분리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린 것인데 우리가 융합되어 있어서 떨어져있지 않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의상 도착의 시작을 공격적인 성적 욕망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나에 대한 전오이디푸스적 공격성에 대한 저항으로 다뤘다. 물론 의상 도착은 여성적 피학성 - 나를 향한 폭력적인 (남성적인) 성적 욕망을 경험하는 것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거세하는 것으로, 이는 원초경에서 배제됨으로써 일으켜진다. - 의 한 형태였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상황에서도 나는 이 환자의 의상 도착을 더 그런 쪽으로 봤다. 그러나 치료실에서 느껴지는 아늑함은 이 순간에 그가 융합되고 싶었던 어머니로서 전이에서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가 흥분하면서 은폐된 남근(Fenichel, 1936)을 과시하고 오이디푸스적 아버지로서 나에게서 처벌을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적 피학성이 오이디푸스적 삼각관계 갈등에 대한 방어로서 현

저할 때, 폭력적인 저류에 대한 상기되고, 좀 더 성화된 격렬함이 존재한다. 환자는 그의 남성적 추동으로부터 달아나고 그가 후퇴한 임상 상황에서 여성적 추근거림과 도발의 혼합을 드러내는데, 이는 *전이*에서 그를 처벌하는 *아버지*로서 분석가에게 과시하고 들들볶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로 돌아가 보자: 파트너로 승진한 후 그는 불안해졌는데, 이는 그가 남성 동료들보다 우위를 차지한 것이었다. 그는 카우치에 누울 수 없었는데 나의 거동을 주시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거슬리고 조롱하는 눈으로 그를 평가한다고 느꼈다. 결국 그는 나를 ‘쥐어박은’ 느낌이 들었으며 ‘오, 선생님의 저 많은 책들 좀 보세요.’ 라고 비웃고 싶었다고 말했다. 나는 Horney 식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위에서, 그는 나(경쟁하는 동료)를 이기고 이제 나를 위험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대상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는 여성적 자세를 취하고, 추파를 던지고 속눈썹을 깜빡였다. 그래서 나는 대신 삼각관계 상황을 해석함으로써 그를 컨테인했다: 즉, 여성이 되는 것은 그가 아버지와 관련된다고 느낄 때 그가 나를 달래는 방식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상사(어머니)의 파트너로 선택되어 내가 위협을 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 에피소드는 슈레버 사례(Freud, 1911)에 대한 Freud의 기술을 떠올리게 했다. 여기서 슈레버는 신(아버지)의 요구에 항복함으로써 그를 달랬는데 슈레버는 여성으로 변하는 매우 굴욕적인 시련을 겪는다.

잠정적으로 삼자관계 수준에 있는 환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자관계 수준으로 자주 퇴행하는데, 여기서 라이벌은 전적으로 패배당하거나 파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우리가 오이디푸스적 욕망에서 되돌아가는 이러한 찰나의 순간을 놓친다면, 더 성숙하고 통합된 삼자관계를 향한 민감한 발달 단계를 지지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어느 날 A씨는 내가 보기에 여성용 같은 가방을 들고 왔다. 그는 흥분되고 동요되어 어떻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비싼 가게에 가서 가방을 고르고 사주었는지 말했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A씨의 분위기는 내숭떨지만 우월한 것 같았고 내가 물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무시했다. 그리고 난 뒤 그는 *자신이 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서있는* 꿈을 이야기했다. 그의 의기양양함을 자극하며, 나는 그가 마치 아버지의 여성 파트너로서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구애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통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이 해석이 옳고 삼각관계를 만족스럽게 다루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말투의 통명스러움은 내가 굴욕을 주고, 항문 삽입하는, 환자가 두려워하면서도 간절히 원했던 아버지이자,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여성이라는 그의 자리를 질투하고 공격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을 시사했다. A씨는 그의 명백히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 오이디푸스적 갈등을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으로, 그가 아는 여성(나)이 악의적으로 질투

하고, 과시적이라고 불평했는데 그 여성은 멋진 남성 파트너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폭력적인 항문가학성으로 더욱 퇴행하여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유대인 동료가 잔인한 반유대적 공격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도록 했다.

돌이켜보면 내가 아버지의 독점적인 사랑과 감탄을 얻고 싶은 A씨의 욕망과, 나(전 이에서의 어머니로서)의 질투에 대한 그의 불안을 먼저 해석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거기에서 나는 아마도 더 깊은 수준 - 어쩌면 가방을 받은 것은 마찬가지로 그의 남성성과 성적인 힘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다 - 으로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즉 그가 좀 더 여성적으로 보임으로써 아버지/전이에서의 나에게 복종하고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었는데 이는 그가 좀 더 남성적이게 됨으로써 우리가 위협을 느낄 거라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 A씨가 분석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의 어느 한 순간을 예로 들 것이다. 이는 내가 성기기적 기능을 향해 전환하도록 할 수 있었다고 느꼈던 순간이다.

A씨가 도착해서는 나를 비난했는데 우리 집 근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계속 있어서 '시달리는'데도 내가 적절하게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길게 보고했는데 그는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사주기로 했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이제는 크리스마스에 오토바이 비용을 주기로 했는데 A씨는 이것이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괴로워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맞서야 한다고 느꼈으나 그러기엔 너무 수줍어한다고 말했다.

A씨는 분개하고 독선적으로 말하기를, 큰 풍선에 팔을 한껏 뻗었으나, 받은 것은 애처로운 작은 공뿐인 불우하고 실망한 아이 같은 느낌을 다시 한 번 받았다고 했다. 나는 그가 버릇없는 아이처럼 말하는 걸로 들려 짜증이 났고, 그의 아버지와 동일시해서, 그가 받은 것을 알기 어렵게 하는 탐욕과 시기심을 해석하는 상상을 했다. 그러나 그때 나는, A씨가 노동자를 언급했었을 때, 나는 속으로는 그가 그들에 대한 똑같은 불평을 다른 날에도 했었으며, 그날은 그가 오늘 입고 온 똑같은 바지를 입고 있었던 날이었다는 것을 떠올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두 경우 모두 이 바지의 모양이 A씨를 약간 더 여성적으로 보이게 하며, 이는 잠재적으로 노동자/나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순간적으로 느꼈다. 그때 나는 내가 그의 거세 불안을 피할 수 있게 '버릇없는 아이'를 언어적으로 때리도록 유발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그가 작은 공들만 가지고 있고 큰 공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는 데, 만약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장 중임을 나나 건축업자가 봤다면 우리에게 정말 불안을 느꼈는지 궁금하다고 A씨에게 말했다.

A씨는 망설였다. 그러더니 그는 자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다. 어제 그는 그가 아는 한 커플을 만났는데, 그가 사려고 하는 오토바이에 대해 설명할 때 그 여성이 흥분된 듯이 보였고 그에게 태워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숨겨야만 하는 강한 끌림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A씨는 나에게 이전에 이야기했던 꿈이 떠올랐다고 말한 후 울기 시작했는데, 이 꿈에서 A씨는 *어떤 커플과 함께 침대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었다*. - 그리고 지금 그는 혼자이고 외롭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나는 A씨에게 그가 이 꿈에 대해 이전에 나에게 말했을 때, 울고 있던 사람은 A씨가 아니라 커플 중 남자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아마도 그는 이것을 이리저리 바꾸었을 것 같은데 자신의 남성적 추동이 상처를 줬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부터 A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감시당하는 성장기 소년이라는 불안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 같은 자기 안에 있는 거대한 거침이 공포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 그는 규칙적으로 손에 로션을 발라 손이 거칠어 보이지 않도록 했다. 그는 이미 거세된 것처럼 자신에 대해 ‘수줍은’과 ‘시달리는’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성적 공격성과 죽이고 싶은 소망을 감추었다는 것을 알았다. 또 다른 꿈은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는 위협적인 남성적 인물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그가 부러진 껍질(그의 페니스가 부러졌음을 상징하는)을 숨겼던 사진으로 그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좀 더 삼각관계 형태에서 그는 경쟁 대상에 대한 걱정을 견뎌낼 수 있었고 정복이 그의 내부에 승리뿐 아니라 두려움과 죄책감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복잡적이고 동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우울(그리고 박해) 죄책감에 대한 신호가 있었는데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부드럽고 민감하고 악의 없이 보기를 언제나 원했다.

결론 : 삼자관계와 성(gender)

이 논문에서 나는 전오이디푸스적 이자관계와 오이디푸스적 삼자 대상관계를 구분하고자 했다. 물론 ‘제 3자’의 의미가 Freud의 오이디푸스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Freud(1919)의 피학적 환상의 발달에 대한 추적에서 세 인물들은 더 이른 시기인 전오이디푸스기에서 이미 연관된다. 두 살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아이를 때리고 있다’고 상상하는데, 이는 결국 아버지가 다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reud의 오이디푸스기에서 삼자 대상관계에 대해 구별되는 점은 - Klein 학파 모델에는 보존되지 않은 구별 - 성적 욕망, 성적 차이 및 성 정체

성을 위한 투쟁을 구현하려 한다는 점이다.

Freud의 오이디푸스적 삼자관계에서 이 삼자는 이제 더 이상 성(gender)이나 세대에 상관없는 ‘다른 사람’(예. 가슴에 대한 형제자매간 경쟁)이 아니다. 갈등 구조는 세대차와 성(gender) 차에 의해 정의되며 - 근친상간 금기에 의해 - 그 결과는 남자 아이가 크고 남성적이게 되어도 된다고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나는 ‘여성적 피학성’ 개념을 하나의 가능성 있는 방어로 유지하는 것이 - 오이디푸스적 아버지와 같은 분석가로부터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처벌이라는 특정한 임상적 혼합과 함께 - 남성의 심리에서 이러한 특정한 투쟁을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했다.